

2021

# 뉴스클리핑

(2021. 7. 31.)

국립광주박물관

연번	제목	매체	일시
1	[여기는 전남] 국보 '쌍사자 석등' 광양 반환, 12년 만에 다시 추진 <a href="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17742&amp;ref=A">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17742&amp;ref=A</a>	KBS NEWS	6.24.
2	국보 '쌍사자 석등' 광양 반환, 12년 만에 다시 추진 <a href="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17917&amp;ref=A">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17917&amp;ref=A</a>	KBS NEWS	6.24.
3	국보 '쌍사자 석등' 광양 반환, 12년 만에 다시 추진 <a href="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18292&amp;ref=A">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18292&amp;ref=A</a>	KBS NEWS	6.25.
4	[광양 유일 국보, 중흥산성 쌍사자석등] 민간주도 반환운동 본격화 <a href="http://www.gy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771">http://www.gy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771</a>	광양뉴스	7.5.
5	국보 쌍사자석등 광양시 반환, 12년 만에 재추진 <a href="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52517">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52517</a>	남도일보	7.12.
6	실감콘텐츠 속 박물관 문화유산찾기 <a href="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9591">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9591</a>	충청일보	7.13.
7	[광주소식]국립광주박물관, 초·중 교사 직무연수 <a href="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14_0001512279&amp;cID=10809&amp;pID=10800">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14_0001512279&amp;cID=10809&amp;pID=10800</a>	뉴시스	7.14.
8	국립광주박물관, 교사 직무연수 운영 <a href="http://www.jndn.com/article.php?aid=1626297904320192006">http://www.jndn.com/article.php?aid=1626297904320192006</a>	전남매일	7.15.
9	부여박물관 보물찾기 이벤트 진행 <a href="http://www.ccd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3810">http://www.ccd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3810</a>	충청매일	7.15.
10	국립광주박물관, 10월24일까지 '함평 신덕고분' 특별전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10719057900054?input=1195m">https://www.yna.co.kr/view/AKR20210719057900054?input=1195m</a>	연합뉴스	7.19.
11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 출토 유물 한자리...국립광주박물관 특별전 <a href="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8746">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8746</a>	BBS NEWS	7.19.
12	떠난 이를 위한 '비밀의 공간, 숨겨진 열쇠' <a href="http://www.jndn.com/article.php?aid=1626670288320327115">http://www.jndn.com/article.php?aid=1626670288320327115</a>	전남매일	7.19.
13	[국립광주박물관] 장고분의 비밀을 품은 열쇠, 30년만에 한 자리에 모아 소개 <a href="http://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8752">http://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8752</a>	문화뉴스	7.19.
14	'삼국시대 고분'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 전시...국립광주박물관 <a href="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19_0001518396&amp;cID=10701&amp;pID=10700">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19_0001518396&amp;cID=10701&amp;pID=10700</a>	뉴시스	7.19.
15	삼국시대 '신덕고분' 비밀 품은 유물, 한자리 모이다 <a href="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881444">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881444</a>	천지일보	7.19.
16	국립광주박물관, 함평 신덕고분 발굴 30주년 특별전 <a href="http://ikbc.co.kr/kor/news?mode=view&amp;nwCd=main_news_03&amp;menuId=56_65_74&amp;nwid=371047">http://ikbc.co.kr/kor/news?mode=view&amp;nwCd=main_news_03&amp;menuId=56_65_74&amp;nwid=371047</a>	kbc 광주방송	7.19.
17	고분 안에 들어온 듯... 비밀 이야기 들여다보자 <a href="http://www.mdilbo.com/detail/Sk5YK6/651027">http://www.mdilbo.com/detail/Sk5YK6/651027</a>	무등일보	7.19.
18	학교·박물관, 교육기능 유기적 연계·소통 <a href="http://www.kjdaily.com/article.php?aid=1626689234551627006">http://www.kjdaily.com/article.php?aid=1626689234551627006</a>	광주매일신문	7.19.
19	장고분 비밀의 열쇠는? <a href="https://news.kjmbc.co.kr/node/331781">https://news.kjmbc.co.kr/node/331781</a>	광주MBC뉴스	7.19.
20	국립광주박물관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 비밀의 공간 숨겨진 열쇠'전 <a href="http://www.kwangju.co.kr/article.php?aid=1626700200723875007&amp;search=광주박물관">http://www.kwangju.co.kr/article.php?aid=1626700200723875007&amp;search=광주박물관</a>	광주일보	7.19.

21	국립광주박물관,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 특별전 <a href="https://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21756">https://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21756</a>	광주인	7.19.
22	국립광주박물관, 10월24일까지 '함평 신덕고분' 특별전 <a href="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21/07/692474/">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21/07/692474/</a>	매일경제	7.19.
23	장고분 비밀의 열쇠는? <a href="https://mpmbc.co.kr/article/1vYvni_GdmnaJ4Y">https://mpmbc.co.kr/article/1vYvni_GdmnaJ4Y</a>	목포MBC	7.20.
24	국립광주박물관,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 특별전 <a href="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37276&amp;ref=A">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37276&amp;ref=A</a>	KBS NEWS	7.20.
25	국립광주박물관,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 특별전 개최 <a href="http://www.cmbkj.co.kr/ab-991-21746">http://www.cmbkj.co.kr/ab-991-21746</a>	CMB광주방송	7.20.
26	베일에 쌓인 '삼국시대 고분' 드디어 실마리 풀리나 <a href="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53550">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53550</a>	남도일보	7.20.
27	장고분의 비밀 품은 열쇠, 30년만에 대공개 <a href="http://kjdaily.com/article.php?aid=1626775979551740006">http://kjdaily.com/article.php?aid=1626775979551740006</a>	광주매일신문	7.20.
28	바다서 건진 보물급 고려청자 보러오세요 <a href="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8248">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8248</a>	기호일보	7.21.
29	아무나 만날 수 없는 바다 속 보물이 인천에 온다 <a href="http://www.d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4303">http://www.d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4303</a>	대한뉴스	7.21.
30	인천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와 '수중유물, 고려바다의 흔적' 개최 <a href="http://www.c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468434">http://www.c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468434</a>	컨슈머타임즈	7.21.
31	국립김해박물관서 23일 '가야 무기' 심포지엄 <a href="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67696">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67696</a>	경남도민일보	7.21.
32	국립광주박물관,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 특별전 개최 <a href="http://www.cmbkj.co.kr/insiter.php?design_file=991.php&amp;article_num=21762">http://www.cmbkj.co.kr/insiter.php?design_file=991.php&amp;article_num=21762</a>	CMB광주방송	7.21.
33	국립광주박물관, 특별전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 <a href="http://www.gj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3458">http://www.gj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3458</a>	광주타임즈	7.21.
34	1500년 전 한일관계 비밀 품은 열쇠, 30년만에 공개 <a href="https://www.jnilbo.com/view/media/view?code=2021072116402224368">https://www.jnilbo.com/view/media/view?code=2021072116402224368</a>	전남일보	7.21.
35	국립광주박물관 '함평 신덕고분' 특별전 10월24일까지 <a href="http://www.jeonmae.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8746">http://www.jeonmae.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8746</a>	전국매일신문	7.24.
36	'신덕고분' 비밀의 실마리 <a href="https://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4975">https://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4975</a>	일요서울	7.26.
37	낮엔 숲투어·밤엔 달투어, 낮밤없는 광주박물관 <a href="http://www.mdilbo.com/detail/EHdc4G/651589">http://www.mdilbo.com/detail/EHdc4G/651589</a>	무등일보	7.29.

4	[광양 유일 국보, 중흥산성 쌍사자석등] 민간주도 반환운동 본격화	광양뉴스	7.5.
	<a href="http://www.gy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771">http://www.gy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771</a>		

## [광양 유일 국보, 중흥산성 쌍사자석등] 민간주도 반환운동 본격화

김효기자 | 승인 2021.07.05 08:30 | ☎ 916 | 댓글 0

지역사회단체 동참 협의체 구성  
반환 위해선 넘어야 할 산 많아



▲ 국립광주박물관에 전시돼 있는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석등

광양의 유일한 국보(제103호)이자 현재 국립광주박물관에 전시돼 있는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석등(통일신라시대 건립·높이 2.5m) 반환운동이 이달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광양문화원(원장 김중호)과 광양YMCA(이사장 박두규) 주축으로 7월 중 지역 사회단체 등이 동참하는(가칭)백운산 쌍사자석등 찾아오기 추진협의체를 꾸리고, 8월 15일 광복절 전에 발대식을 갖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

이를 위해 추진 실무를 맡은 광양문화원은 지역 사회단체들에 추진협의체 참여를 호소하는 안내문을 발송해 최대한 많은 단체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범시민추진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복안이다.

시관계자는 "광양문화원과 광양YMCA 등 지역사회단체가 주도적으로 광주국립박물관에 전시돼 있는 중흥산성 쌍사자석등을 광양으로 가져오려고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 용역예산으로 도비 1000만원이 확보돼 있는 만큼 시 차원에서도 추경에 시비를 세워 관련 용역과 공청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타 지자체에서도 문화원이 주도해 문화재 반환을 이뤄낸 사례가 있는 만큼 지역사회 참여가 확대되고 협의체가 구성되면 최대한 노력해 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광양문화원 관계자는 "광양에 도립미술관도 개관한 만큼 이곳에 쌍사자석등을 옮겨 오면 좋겠다"는 지역사회 여론이 높아져 있다"며 "광양YMCA와 공동으로 추진위원단을 꾸리고 이달부터 (가칭)백운산 쌍사자석등 돌려받기 추진을 위한 지역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광양으로 옮겨오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 문화재를 찾아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남도의회에서 쌍사자석등 학술연구비 예산을 확보해 온 김길용 도의원은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도 원래 있던 장소로 문화재를 돌려받기 위해 추진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이번기에는 이를 위한 촉구 건의안을 도의회에서 발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같은 지역사회의 노력에도 쌍사자석등 반환 추진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 목소리다.

이전 장소와 관리 등을 둘러싸고 소유권을 가진 문화재청 승인과 광주국립박물관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문화재청이 전국적으로 문화재 반환을 요구한다고 해서 돌려주게 되면 국립박물관에 남을 유물이 없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다.

더구나 국보는 국가재산으로 관리하는 유물이기 때문에 이관 대상이 다니어서 원칙적으로 반환은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흥산성 쌍사자석등은 지난 1992년과 2009년 등 2번에 걸쳐 반환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되고 말았다.

광양군 시절이던 1992년에는 당시 광양문화원 주도로 범군민적 운동을 펼치며 문화재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문화재 관리 부처에서 석등 보존상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안전한 환경에서 보존해야 한다는 이유를 쟁지 못하고 무산됐다. 광양에는 이 같은 시골이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김길용 도의원은 "예전 반환 추진 당시에는 광양에서 관리할 만한 능력이 안 돼 반환이 무산됐지만 지금은 석등을 원형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고 본다"며 "광양 중흥산성에 있던 광양 유일의 국보이자 문화유산을 다시 찾아와야 하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기록에 따르면 중흥산성 쌍사자석등은 일제강점기였던 1930년대 조선총독부에 의해 중흥산성에서 전남도지사 관사로 옮겨졌으며, 이후 △경복궁 자경전 앞 △1945년 해방 이후 경무대(청와대 옛 명칭)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역사궁 △1972년 경복궁으로 다시 옮겨졌다가 1990년 국립광주박물관으로 옮겨져 현재 박물관 로비에 전시 중이다.

저작권자 © 광양뉴스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

5	국보 쌍사자석등 광양시 반환, 12년 만에 재추진	남도일보	7.12.
	<a href="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52517">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52517</a>		

## 국보 쌍사자석등 광양시 반환, 12년 만에 재추진

최연수 기자 | 2021.07.11 17:00 | 수정 2021.07.11 17:30 | 댓글 0



광양지역 시민단체 추진협의체 구성 '젠걸음'  
8월 중 추진협의체 구성 목표...광양시도 적극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석등(국보 제103호)/국립광주박물관 제공

광양문화원과 광양지역 시민단체 등이 지역의 유일한 국보인 중흥산성 쌍사자석등(제103호) 반환운동을 12년 만에 다시 한 번 본격화한다.

광양문화원과 광양YMCA 등은 7월 중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가칭)백운산 쌍사자석등 찾아오기 추진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추진 실무를 맡은 광양문화원은 이에 따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에 추진협의체 참여를 호소하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오는 13일 2차 회의를 갖는 등 반환운동을 구체화하고 있다.

앞서 중흥산성 쌍사자석등은 지난 1992년과 2009년 등 2번에 걸쳐 반환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특히 광양군 시절이던 1992년에는 당시 광양문화원 주도로 범군민적 운동을 펼치며 문화재 반환을 요구했다. 당시 문화재 관리 부처에서는 석등 보존상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안전한 환경에서 보존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반환을 거절했다.

하지만 전남도립미술관이 광양에서 개관되고, 문화재 보존을 위한 광양시의 역량도 충분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쌍사자석등 반환을 이번엔 다시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광양문화원 관계자는 "광양에 전남도립미술관이 개관한 만큼 이곳에 쌍사자석등을 옮겨오면 좋겠다는 지역사회 여론이 높아져 있다"며 "광양YMCA와 공동으로 추진위원단을 꾸리고 이달부터 (가칭)백운산 쌍사자석등 둘러보기 추진을 위한 지역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에도 쌍사자석등 반환에는 여러 가지 난관이 예상된다.

우선 이전 장소와 관리 등을 둘러싸고 소유권을 가진 문화재청 승인과 광주국립박물관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또 문화재청이 쌍사자석등을 꼭 집어 반환한다면 다른 지자체도 같은 요구를 할 수 있어 문화재청 입장에서도 부담으로 적용할 가능성도 높다.

이에 문화재청은 국보란 국가재산으로 관리하는 유물이기 때문에 이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반환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의회에서 쌍사자석등 학술연구비 예산을 확보해 온 김길용 도의원도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도 원래 있던 장소로 문화재를 돌려받기 위해 추진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한다"며 "하반기에는 이를 위한 촉구 건의안을 도의회에서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지자체에서도 문화원이 주도해 문화재 반환을 이뤄낸 사례가 있는 만큼 지역사회 참여가 확대되고 협의체가 구성되면 최대한 노력해 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록에 따르면 중흥산성 쌍사자석등은 일제강점기였던 1930년대 조선총독부에 의해 중흥산성에서 전남도지사 관사로 옮겨졌으며, 이후 ▲경복궁 자경전 앞 ▲1945년 해방 이후 경무대(경의대 옛 명칭)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덕수궁 ▲1972년 경복궁으로 다시 옮겨졌다가 1990년 국립광주박물관으로 옮겨져 현재 박물관 로비에 전시 중이다. 동부취재본부/최연수 기자 karma4@namdonews.com

6	실감콘텐츠 속 박물관 문화유산찾기	충청일보	7.13.
	<a href="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9591">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9591</a>		

## 실감콘텐츠 속 박물관 문화유산찾기

박보성 기자 | 입력 2021.07.13 15:26 | 댓글 0



### 국립부여박물관 '실감나는 보물찾기'

국립부여박물관은 한국판 뉴딜 1주년을 기념으로 첨단기술과 문화유산이 융합된 실감콘텐츠 체험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한 전국의 국립박물관(광주, 청주, 김해, 춘천)이 함께하는 '실감나는 보물찾기' 이벤트를 12일부터 오는 8월 8일(일)까지 진행한다.

국립부여박물관은 박물관의 대표 문화재 '백제금동대향로'를 주제로 한 실감콘텐츠를 상설전시실 로비에서 10시부터 17시까지 매시 정각(12시 제외, 총 7회)에 상영 중이며, 이와 연계하여 살펴볼 전시실 속 문화유산으로 '백제금동대향로(국보 제287호), 부여능산리사지 석조사리감(국보 제288호), 부여석조(보물 제194호), 산수봉황무늬 벽돌(보물 제343호)' 등이 있다.

이벤트 참여는 실감콘텐츠와 연계된 전시품을 찾아 인증샷을 찍고, 감상평과 필수해시태그(실감나는보물찾기, 실감영상, 국립부여박물관)를 개인 SNS(인스타그램 등) 계정에 전체공개로 올린 후 참여링크(<https://bit.ly/2UqkY12>)로 접속하여 게시물 링크 및 상품 수령지 정보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국립박물관 6개 관은 '실감나는 보물찾기' 이벤트를 동시에 진행하고 매주 추첨을 통해 총 400명(매주 수요일 100명씩, 총 4회)의 참가자를 선정하여 국립박물관 문화상품을 선물로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부여박물관 누리집(<http://buyeo.museum.go.kr>)과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보성기자

7	<p>[광주소식]기술입은 문화예술교육 중학생 모집 등</p> <p><a href="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14_0001512279&amp;cID=10809&amp;pID=10800">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14_0001512279&amp;cID=10809&amp;pID=10800</a></p>	뉴스시스	7.14.
---	--	------	-------

◇국립광주박물관, 초·중 교사 직무연수

국립광주박물관은 다음달 9일부터 13일까지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실제적 박물관 활용을 위한 교사 직무연수'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연수는 초·중 교사들이 박물관 소장 자료를 교육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또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이 문화를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학교 교육과 박물관의 교육적 기능이 연계될 수 있는 강좌 등이 펼쳐진다. 연수는 무료로 진행되며, 선착순 40명으로 제한된다.

8	국립광주박물관, 교사 직무연수 운영	전남매일	7.15.
	<a href="http://www.jndn.com/article.php?aid=1626297904320192006">http://www.jndn.com/article.php?aid=1626297904320192006</a>		

## 국립광주박물관,교사직무연수운영

2021년 07월 15일(목) 06:25



국립광주박물관 교사 직무연수.

국립광주박물관은 오는 8월 9일부터 13일까지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실제적 박물관 활용을 위한 교사 직무연수'를 운영한다. 박물관을 활용하는 이용자(교사) 입장에서 실제적인 박물관 활용 방법을 고안·공유해 학교 내에서 박물관 자원이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세부내용으로는 지난 3월 새롭게 문을 연 국립광주박물관 상설전시(역사문화실, 아시아도자문화실)를 기획·담당한 학예연구사와 마주하며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감상하는 시간과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박물관교육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더불어 ▲백제 문화(이병호/공주교대 교수) ▲한국의 불교문화(남동신/서울대 교수) ▲한국 도자기 이해(이애령/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장) ▲호남의 유교문화(고영진/광주대 교수) ▲남도 회화의 멋과 의미(이선옥/의재미술관장) ▲박물관교육(최성희/광주교대 교수) 등 전문 강의 시간도 구성했다.

교육은 모두 무료로 진행되며, 신청은 국립광주박물관 누리집에서 선착순 40명으로 접수를 마감한다.

/이연수 기자 [이연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9	부여박물관 보물찾기 이벤트 진행	충청매일	7.15.
	<a href="http://www.ccd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3810">http://www.ccd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3810</a>		

## 부여박물관 보물찾기 이벤트 진행

👤 전재국 기자 | 🕒 승인 2021.07.15 17:18 | 💬 댓글 0



[충청매일 전재국 기자] 국립부여박물관은 첨단기술과 문화유산이 융합된 실감콘텐츠 체험관 참여 확대를 위해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한 전국 국립박물관(광주, 청주, 김해, 춘천)이 함께하는 '실감나는 보물찾기' 이벤트를 다음달 8일까지 진행한다.

부여박물관은 박물관의 대표 문화재 '백제금동대향로'를 주제로 한 실감콘텐츠를 상설전시실 로비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매시 정각(12시 제외, 총 7회)에 상영 중이다.

참여는 실감콘텐츠와 연계된 전시품을 찾아 인증샷을 찍고, 감상평과 필수해시태그(#실감나는보물찾기, #실감영상, #국립부여박물관)를 개인 SNS(인스타그램 등) 계정에 전체공개로 올린 후 참여링크(<https://bitly/2UqkY12>)로 접속해 게시를 링크 및 상품 수령지 정보 등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10	국립광주박물관, 10월24일까지 '함평 신덕고분' 특별전	연합뉴스	7.19.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10719057900054?input=1195m">https://www.yna.co.kr/view/AKR20210719057900054?input=1195m</a>		

## 국립광주박물관, 10월24일까지 '함평 신덕고분' 특별전

송고시간 2021-07-19 10:36



전승현 기자  
기자 확인



함평 신덕고분 특별전  
[광주국립박물관 제공/재배포 및 D6금지]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국립광주박물관은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비밀의 공간, 숨겨진 열쇠' 특별전을 19일부터 10월 24일까지 국립광주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시회는 1부 '너른 들판 위, 독특한 무덤', 2부 '뜻밖의 발견, 드러난 실체', 3부 '죽음과 삶, 기억의 공간', 4부 '무덤 속 비밀의 실마리', 5부 '반듯한 돌방 속 시대의 반영' 등 총 5부로 구성됐다.

신덕고분에서 출토된 유물들도 전시한다.

신덕고분은 2기의 삼국시대 무덤으로 구성됐다.

1호 무덤은 위에서 볼 때 열쇠 구멍 모양, 옆에서 볼 때 장구 모양인 6세기 전반의 장고분(長鼓墳, 장구 모양과 닮았다고 해 붙여진 이름)이다.

1호 무덤과 같은 장고분은 호남지역에만 총 14기가 있다.

2호 무덤은 7세기 전반의 원형 무덤이다.

1991년 3월, 도굴된 신덕고분을 발견한 국립광주박물관은 무덤 내부에 대해 긴급조사를 해 장고분의 매장시설이 석실(石室)임을 최초로 밝혔다.

당시 내부에서 화려한 장신구를 포함한 다량의 유물을 확인했다.

이후 도굴됐던 유물을 다시 찾았고, 3차례의 추가 발굴조사를 거치면서 무덤에 대한 자료가 차곡차곡 쌓였다.

박물관 관계자는 "발굴조사 3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처음으로 신덕고분 출토 유물을 한데 모아 공개하고, 그동안 학계에서 연구했던 성과를 바탕으로 고분의 특성을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자리다"고 설명했다.

shchon@yna.co.kr

11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 출토 유물 한자리...국립광주박물관 특별전	BBS NEWS	7.19.
	<a href="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8746">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8746</a>		

##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 출토 유물 한자리...국립광주박물관 특별전

▲ 김종범 기자 | © 입력 2021.07.19 10:46 | © 수정 2021.07.19 10:48 | 댓글 0

출 | 가 |

### 10월 24일까지 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



▲ 국립광주박물관 특별전 전시실 전경 (국립광주박물관 제공)

전남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한자리에서 살펴볼수 있는 전시가 열려 눈길을 끌고 있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수미)은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 - 비밀의 공간, 숨겨진 열쇠'라는 주제로 오늘(19일)부터 오는 10월 24일까지 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특별전을 개최한다.

신덕고분 발굴조사 3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전시는 삼국시대인 6세기 경 조성된 장고분(長鼓墳) 장고 모양과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인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에서 3차례에 발굴조사를 통해 출토된 유물들을 한 데 모아 선보이는 자리다.

전시는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의 발견에서부터 조사, 결과까지의 과정을 포함해 총 5부로 구성됐다.

1부 '너른 들판 위, 독특한 무덤'은 처음 발견 당대 사람들이 느꼈을 무덤에 대한 의문을 공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항공촬영 영상을 이용해 무덤의 독특한 형태를 강조하고, 이와 함께 공간적 위치를 다룬다.

2부 '뿔밖의 발견, 드러난 실체'는 무덤을 조사하게 된 특별한 계기를 소개하고 당시 조사 과정을 조명한다. 도굴 사건을 다룬 언론의 반응과 조사 당시 사진 자료에서 긴박했던 상황도 엿볼 수 있다.

3부 '죽음과 삶, 기억의 공간'에서는 먼저 떠나간 이를 기억하려는 인간의 본성을 다룬다. 1호 무덤의 안팎에서는 죽은 이를 묻는 과정에서 치른 의례 행위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데, 이를 전시로 형상화해 실감나게 소개한다.

4부 '무덤 속 비밀의 실마리'는 1호 무덤 돌방에서 발견한 깨문거리 800여 점을 통해 무덤 주인의 삶을 조명한다. 유물을 용도에 따라 장신구, 무기, 생활 도구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의미를 살펴본다.

5부 '반듯한 돌방 속 시대의 반영'에서는 2호 무덤 돌방의 구조에 담긴 백제의 지방 지배 방식을 이야기한다. 이와 함께 신덕고분을 조사하는 데 사용한 과학적 분석 방법과 그 결과물도 소개한다.

전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전시와 관련된 키워드들을 이용해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진다. 현재를 살아가는 관람객들이 '죽은 이를 위한 공간'인 무덤과 그곳에 담긴 '삶의 이야기'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직접 표현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김종범 기자 kgb29@hanmail.net

[다른기사보기](#)

12	<p>떠난 이를 위한 '비밀의 공간, 숨겨진 열쇠'</p> <p><a href="http://www.jndn.com/article.php?aid=1626670288320327115">http://www.jndn.com/article.php?aid=1626670288320327115</a></p>	전남매일	7.19.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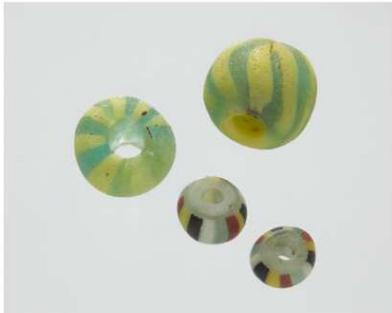
**떠난이를위한'비밀의공간,숨겨진열쇠'**  
 국립광주박물관 특별전 '함평 에닥리 신덕고분'  
 고분에 담긴 1천5백년 전 삶의 이야기 한자리에  
 2021년 07월 19일(월) 13:51



함평 신덕고분-유령점시

'죽음을 마주하는 인간의 태도는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전시실 입구에서 맞이하는 뜻밖의 문구 앞에 잠시 발길을 멈추는 관람객들. 국립광주박물관이 함평 에닥리 신덕고분 발굴조사 30주년을 기념해 특별전 '비밀의 공간, 숨겨진 열쇠'를 개최한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91년 3월, 신덕고분을 축약하던 국립광주박물관 연구원들은 1호 무덤 왼쪽에서 이상한 구덩이를 발견했다. 누군가 무덤을 마구 파헤쳐 돌방 안에 있던 유물을 훔쳐 간 흔적이었다.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범인은 훔친 유물을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경비실에 맡기고 달아났다가 곧 붙잡혔다. 이후 되찾은 유물을 분석하고 본격적으로 무덤을 조사하면서 고분의 실체는 조금씩 밝혀지기 시작했다.



함평 신덕고분-연려문 구슬

국립광주박물관이 19일 언론에 공개한 '함평 에닥리 신덕고분'은 장고분의 비밀을 열쇠로 하나 하나 열어나가는 기분으로 관람할 수 있는 전시다. 이번 전시는 처음으로 신덕고분 출토유물을 한데 모아 공개하고, 그동안 학계에서 연구했던 성과를 바탕으로 고분의 특성을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자리다.

너른 돌방 위 독특한 무덤을 발 밑 영상으로 덮고 넘어간 관람객은 뜻밖의 발견과 드러난 실체에서 긴박했던 당시의 상황을 읽고 죽음과 삶, 기억의 공간인 무덤을 마주한다.  
 인간의 본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공간인 무덤. 2기의 삼국시대 무덤으로 구성되는 신덕고분에서 우리는 죽음을 마주한 인간이 남긴 흔적과, 죽음 후에도 누리고 싶었던 삶의 방식들을 읽을 수 있다.

신덕리 고분 무덤 속의 주인공은 20~30대의 남성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신덕 1호의 돌방은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돌방 안에는 화려한 장신구를 비롯해 여러 종류의 물건들이 있다. 이 무덤의 주인이 개방적인 성향을 가지고 주변 지역과 활발하게 교류했던 사람이었음을 보여준다.



19일 국립광주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함평 에닥리 신덕고분 출토 유물을 공개하는 언론 대상 전시 설명회가 열렸다.

전시는 5부로 나뉘어 구성된다. 전시 공간마다 바로 답을 확인할 수 있는 퀴즈 공간이 있어 어린이나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도록 했다. 또 5개의 전시공간마다 '신박한 덕후가 되는 퀴즈' 이벤트가 마련돼 5개의 퀴즈를 완성하면 국립광주박물관 기념품도 제공한다. 여름방학 가족 방문지로 제격이다.

전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전시와 관련된 키워드들을 이용해 여러가지 질문을 던진다. '무덤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은?' 등 그날 그날 달라지는 질문에 관람객이 답을 입력하면 대형 벽면에 관람객의 답이 모여지며 은하계를 유영한다. 국립광주박물관 이수미 관장은 "장고분은 오랫동안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던 무덤이었다. 여러 장고분을 조사했지만 신덕고분만큼 깨문거리의 구성을 온전히 파악할 수 있는 무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신덕고분이 장고분의 비밀을 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다"라며 "처음으로 신덕고분에서 나온 모든 유물을 공개하는 이번 전시는 호남지역 장고분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특별전의 취지를 설명했다.

전시는 오는 10월 24일까지.

13	[국립광주박물관] 장고분의 비밀을 품은 열쇠, 30년만에 한 자리에 모아 소개	문화뉴스	7.19.
	<a href="http://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8752">http://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8752</a>		

## [국립광주박물관] 장고분의 비밀을 품은 열쇠, 30년만에 한 자리에 모아 소개

A 김창열 기자 | © 일력 2021.07.19 14:00 | 🔍 댓글 0

🔍 🔍 🔍 🔍 🔍 🔍 🔍 🔍 🔍 🔍

국립광주박물관, 특별전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 개최  
5개의 주제로 알아보는 신덕고분



신덕고분 전시실 (사진=국립광주박물관 제공)

[문화뉴스 김창열 기자]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수미)은 특별전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 - 비밀의 공간, 숨겨진 열쇠>를 7월 19일부터 10월 24일까지 국립광주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발굴조사 30주년을 기념하여 열리는 이번 전시는 처음으로 신덕고분 출토 유물을 한데 모아 공개하고, 그동안 학계에서 연구했던 성과를 바탕으로 고분의 특성을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자리이다.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은 2기의 삼국시대 무덤으로 구성된다. 1호 무덤은 위에서 볼 때 열쇠 구멍 모양, 옆에서 볼 때 장구 모양인 6세기 전반의 장고분(長鼓墳, 장고 모양과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고, 2호 무덤은 7세기 전반의 원형 무덤이다.

1호 무덤과 같은 장고분은 호남지역에만 총 14기가 있는데, 가까운 곳에 있는 삼국시대의 무덤과는 다른 모양과 성격을 보인다. 오히려 그 모양이 일본 고분시대(古墳時代)의 주요 무덤인 전방후원분(前方後圓墳)과 비슷하여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이런 모양의 무덤이 조사된 적이 없어 그 정체가 의문으로 남아있었다. 30년 전인 1991년 3월, 도굴된 신덕고분을 발견한 국립광주박물관은 무덤 내부에 대한 긴급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과정에서 장고분의 매장시설이 돌병(石室)임을 최초로 밝혔고, 내부에서 화려한 장신구를 포함한 다량의 유물을 확인하였다. 그 후 도굴되었던 유물을 다시 찾았고, 3차례의 추가 발굴조사를 거치면서 무덤에 대한 자료가 차곡차곡 쌓였다.

전시 구성은 총 5부로 구성했다. 각각의 주제는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의 발견부터 조사, 결과까지의 과정을 순서대로 반영함과 동시에 자료들이 의미하는 바를 충실하게 담았다.



금다리 찰시 (사진=국립광주박물관 제공)

1부 '너른 들만 위, 독특한 무덤'은 처음 발견 당시 사람들이 느꼈을 무덤에 대한 의문을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이다. 항공촬영 영상을 이용해 무덤의 독특한 형태를 강조하고, 이와 함께 공간적 위치를 다룬다.

2부 '뫼뱀의 발견, 드러난 실체'는 무덤을 조사하게 된 특별한 계기를 소개하고 당시 조사 과정을 조명한다. 도굴 사건을 다룬 언론의 반응과 조사 당시 사진 자료에서 긴박했던 상황을 엿볼 수 있다.

3부 '죽음과 삶, 기억의 공간'에서는 먼저 떠나간 이를 기억하려는 인간의 본성을 다룬다. 1호 무덤의 안팎에서는 죽은 이를 묻는 과정에서 지른 의례 행위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데, 이를 전 시로 형상화해 살감나게 소개한다.

4부 '무덤 속 비밀의 실마리'는 1호 무덤 돌방에서 발견한 깨문거리 800여 점을 통해 무덤 주인의 삶을 조명한다. 유물을 용도에 따라 장신구, 무기, 생활 도구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의미를 살펴본다.

5부 '반듯한 돌방 속 시대의 반영'에서는 2호 무덤 돌방의 구조에 담긴 백제의 지방 지배 방식을 이야기한다. 이와 함께 신덕고분을 조사하는 데 사용한 과학적 분석 방법과 그 결과물도 소개한다.



쇠두구 (사진=국립광주박물관 제공)

전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전시와 관련된 키워드들을 이용해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진다. 현재를 살아가는 관람객들이 '죽은 이를 위한 공간'인 무덤과 그곳에 담긴 '살의 이야기'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직접 표현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전시 담당자는 '장고분은 오랫동안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던 무덤이었다. 여러 장고분을 조사하였지만 신덕고분만큼 깨문거리의 구성을 온전히 파악할 수 있는 무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현재로서는 신덕고분이 장고분의 비밀을 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인 것이다. 처음으로 신덕고분에서 나온 모든 유물을 공개하는 이번 전시는 호남지역 장고분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특별전의 취지를 설명했다.

14	'삼국시대 고분'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 전시...국립광주박물관 <a href="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19_0001518396&amp;cID=10701&amp;pID=10700">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19_0001518396&amp;cID=10701&amp;pID=10700</a>	뉴스시스	7.19.
----	---	------	-------

## '삼국시대 고분'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 전시...국립광주박물관



등록 2021-07-19 17:16:26

| 10월24일까지...유물·연구결과 소개



[광주=뉴스시스] 국립광주박물관은 특별전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비밀의 공간, 숨겨진 열쇠'를 10월24일까지 1층 기획전시실에서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사진=국립광주박물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스시스] 류형근 기자 = 전남 함평 예덕리에서 발견된 삼국시대 고분의 출토 유물과 연구 성과들이 공개된다.

국립광주박물관은 특별전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비밀의 공간, 숨겨진 열쇠'를 10월24일까지 1층 기획전시실에서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발굴조사 3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전시는 처음으로 신덕고분 출토 유물을 공개한다. 또 그동안 학계에서 연구했던 성과를 바탕으로 고분의 특성을 다각적으로 살펴본다.

총 5부로 구성된 전시는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의 발견부터 조사, 결과까지의 과정을 순서대로 보여준다.

1부 '너른 들판 위, 독특한 무덤'은 항공촬영 영상을 이용해 무덤의 독특한 형태를 보여준다.

2부 '뒤틀림의 발견, 드러난 실체'는 무덤을 조사하게 된 계기를 소개하고 당시 조사 과정을 조명한다. 도굴 사건을 다룬 언론의 반응과 조사 당시 사진 자료에서 긴박했던 상황을 엿볼 수 있다.

'죽음과 삶, 기억의 공간'에서는 죽은 이를 묻는 과정에서 치른 의례 행위를 전시로 형상화해 소개한다.

4부 '무덤 속 비밀의 실마리'는 1호 무덤 돌방에서 발견한 겨문거리 800여점을 통해 무덤 주인의 삶을 조명한다. 유물을 용도에 따라 장신구, 무기, 생활 도구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의미를 살펴본다.

5부 '반듯한 돌방 속 시대의 반영'에서는 2호 무덤 돌방의 구조에 담긴 백제의 지방 지배 방식을 이야기한다.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은 1991년에 국립광주박물관이 지역의 중요 대형고분에 대해 조사를 하던 중 도굴경을 발견하면서 본격 조사가 이뤄졌다.

총 2기의 삼국시대 무덤으로 1호 무덤은 위에서 볼 때 옆쇠 구멍 모양, 옆에서 볼 때 장구 모양을 하고 있어 장고분(長鼓墳)이라 불리며 2호 무덤은 7세기 전반의 원형 무덤이다.

국립광주박물관 전시 담당자는 "장고분은 오랫동안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던 무덤이다"며 "처음으로 신덕고분에서 나온 모든 유물을 공개하는 이번 전시는 호남지역 장고분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15	삼국시대 '신덕고분' 비밀 품은 유물, 한자리 모이다	천지일보	7.19.
	<a href="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881444">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881444</a>		

## 삼국시대 '신덕고분' 비밀 품은 유물, 한자리 모이다

장수경 기자 (jks21@newsj.com) | 승인 2021.07.19 16:27 | 댓글 1



함평 예덕리 신덕 1호 무덤서 출토된 두경 접시(국립광주박물관) ©천지일보 2021.7.19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삼국시대 무덤인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의 비밀을 품은 열쇠가 한자리에 모아졌다.

19일 국립광주박물관은 특별전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비밀의 공간, 숨겨진 열쇠'를 7월 19일부터 10월 24일까지 국립광주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발굴조사 3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전시는 처음으로 신덕고분 출토 유물을 한데 모아 공개하는 자리다. 그간 학계에서 연구한 성과를 바탕으로 고분의 특성을 다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은 2기의 삼국시대 무덤으로 구성된다. 1호 무덤은 위에서 볼 때 열쇠 구멍 모양, 옆에서 볼 때 장구 모양인 6세기 전반의 장고분(長鼓墳; 장고 모양과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고, 2호 무덤은 7세기 전반의 원형 무덤이다.



함평 예덕리 신덕 1호 무덤서 출토된 굽다리 접시 (제공: 국립광주박물관) ©천지일보 2021.7.19

그러나 이런 모양의 무덤이 조사된 적이 없어 그 정체가 의문으로 남아있었다. 30년 전인 1991년 3월, 도굴된 신덕고분을 발견한 국립광주박물관은 무덤 내부에 대한 긴급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과정에서 장고분의 매장시설이 돌방(石室)임을 최초로 밝혔고, 내부에서 화려한 장신구를 포함한 다량의 유물을 확인하였다. 그 후 도굴됐던 유물을 다시 찾았고, 3차례의 추가 발굴조사를 거치면서 무덤에 대한 자료가 차곡차곡 쌓였다.

전시 구성은 총 5부로 구성했다. 각각의 주제는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의 발견부터 조사, 결과까지의 과정을 순서대로 반영함과 동시에 자료들이 의미하는 바를 충실하게 담았다.

전시 담당자는 "장고분은 오랫동안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던 무덤이었다. 현재로서는 신덕고분이 장고분의 비밀을 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라며 "이번 전시는 호남지역 장고분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7	<p>고분 안에 들어온 듯... 비밀 이야기 들여다보자</p> <p><a href="http://www.mdilbo.com/detail/Sk5YK6/651027">http://www.mdilbo.com/detail/Sk5YK6/651027</a></p>	무등일보	7.19.
----	---	------	-------

## 고분 안에 들어온 듯... 비밀 이야기 들여다보자

입력 2021.07.19. 19:04

[국립광주박물관 특별전 '비밀의 공간, 숨겨진 열쇠' 가보니]  
 팔명 예덕리 신덕고분 30년만 첫 공개  
 명신강 유적 14기 장고분 중 첫 조사지  
 유일하게 부장품 양상 온전히 파악 가능  
 "재밌게 전달하고자 고분 공간처럼 구성"



팔명 예덕리 신덕고분의 형태와 위치지 특성을 알 수 있는 항공사진 등이 전시돼있다.

시각적으로 아름다움을 느끼기엔 역사적 의미와 맥락을 알아야해 어렵게만 느껴지는 고고학 전시. 국립광주박물관이 이 고고학 전시를 보다 쉽고 재밌게 전달하기 위해 공을 들인 특별전을 공개했다.

'팔명 예덕리 신덕고분-비밀의 공간, 숨겨진 열쇠'. 이번 전시는 명신강유적 14기의 장고분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조사가 이뤄졌으며, 대다수의 장고분이 막심한 도굴 피해를 입은 가운데 유일하게 부장품의 양상을 온전히 알 수 있어 그 자료 역할을 하는 팔명 신덕고분이 주인공이다.

이번 특별전은 신덕고분에 대한 첫 전시다. 발굴 조사를 한 지 꼭 30년 만인데, 신덕고분 출토 유물 뿐만 아니라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 고분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발굴조사 당시의 상황을 곁에서 숨은 이야기를 알아가는 재미까지 느낄 수 있다.



1991년 신덕고분을 축조조사 하기 위해 쓰였던 도구들과 당시 현장 모습이 담긴 사진 자료

전시관으로 입장하면 황궁에서 촬영해 신덕고분의 전체 모양을 살펴볼 수 있는 화면이 관람객을 반긴다. 멀리 구형 모양의 1호기와 둥그런 모양의 2호기가 함께 자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 넓은 거문대 자리 한 공간적 특성 또한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이곳을 통과해 들어가면 신덕고분을 조사하게 된 배경과 당시 조사 과정, 도굴 사건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1930년대부터 학계에 보고된 바 있는 호남지역 장고분은 1980년대부터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전까지 조사된 바 없어 미스터리로 남아있다가 팔명 예덕리 신덕고분은 장고분 바로 옆 원형분이 자리한 것에 주목, 1991년에 축조 조사가 시작됐다. 축조를 위해 고분 위에 올라갔던 당시 학예연구사들은 구석에 도굴 흔적을 발견하게 되고, 검침의 수사가 시작되자 도굴범은 관람객을 위장해 경비실에 유물이 든 상자를 맡기고 달아났다. 시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았던 상자에는 신덕고분의 부장품이 들어있었고 신덕고분은 이로 인해 부장품을 비교적 온전히 되찾을 수 있게 된다.



신덕고분의 주인에 대해 추측할 수 있는 다양한 출토품.

이같은 긴박했던 당시의 상황을 눈으로 확인하고 나면 뒤쪽으로는 신덕고분의 무덤 돌방 입구를 형상화한 3부 벽선이 시작된다. 돌방 입구 앞에 흩뿌려져 있던 그릇과 철기 유물, 향아리 속 참등버 등을 발굴조사 당시 사진과 함께 그대로 재현했다. 당시 현장을 최대한 사실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등시에 죽은 이를 떠나보내는 과정서의 의례 행위를 엿볼 수 있게 했다.

돌방 입구를 지나 들어오면 옛 연구실을 최대한 그대로 살린 콘셉트의 4부 벽선의 전시장이 모습을 드러낸다. 이곳에서는 무덤 주인의 삶을 추측해볼 수 있는 출토품을 살펴볼 수 있다. 출토품 중 가장 많은 양과 온전한 구성을 보여주는 장신구와 무기류, 권력과 재산을 과시하는 말과 관련한 장식품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마지막에는 장고분 옆에 조성된 원형분에 대한 이야기와 장고분 출토품을 연구할 때 쓰였던 첨단 기술 등을 소개한다. 바로 옆에 조성된 원형분은 장고분을 조성한 이후 100년 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도굴로 인해 출토 유물이 거의 없어 1호기와와의 관계를 밝히지 못했다. 하지만 육각형의 무덤 돌방의 단면은 백제의 높은 계급에서 쓰인 무덤 양식으로 전남 지역에서 이 같은 형태의 돌방은 신덕 2호기 무덤이 유일해 백제의 지방 지배 방식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덕고분 발굴조사 당시 서서 서서에 돌방입구 방향을 재확인할 당시 모습. 발굴이래 촬영해온 드론과 등기위 촬영해서 촬영한 1호기 도굴 흔적을 볼 수 있다.

특히 총 5부로 기획된 이번 전시는 각각의 색선마다 색선을 설명하고 퀴즈 이벤트도 음모할 수 있는 브로서를 설치해 관람객들이 이를 한 장씩 들어 전시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박경도 국립광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은 "신덕고분을 조사, 연구한지 30년이 됐으나 오늘날까지 신덕고분 유물과 유적 정보는 온전히 공개된 적이 없었다. 이번 전시가 처음으로 온전히 공개하는 자리"라면서 "특히 신덕고분과 같은 장고분은 올해부터 시작되는 마한문화특별법과 관련해 지역 역사문화 성격을 규명하는데 중요하다"고 이번 특별전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이수미 국립광주박물관장은 "신덕고분에 대해 어떻게 하면 재밌게 전달할 수 있을지 학예실에서 많은 고민을 거친 끝에 고분 안에 들어와 관람객들이 비밀 공간 속에서 하나하나 열쇠 찾아 그 비밀을 열어가게 것처럼 꾸몄다"며 "이번 전시 통해 우리 박물관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 오랜 기간 연구를 거쳐 가시 화해 대중에 알려야 지역 콘텐츠가 차별화하고 특색을 갖출 수 있다. 그런 역할을 우리 박물관이 계속해 나가겠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별전은 오는 10월 24일까지 1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김혜진기자 hj@mdilbo.com

18	학교·박물관, 교육기능 유기적 연계·소통	광주매일신문	7.19.
	<a href="http://www.kjdaily.com/article.php?aid=1626689234551627006">http://www.kjdaily.com/article.php?aid=1626689234551627006</a>		

## 학교·박물관, 교육기능 유기적 연계·소통

| 국립광주박물관, 내달 9일부터 13일까지 초·중등 교사 40명 대상 직무연수

2021. 07.19(월) 19:07 김다이 기자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수미)은 8월9일부터 13일까지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실제적 박물관 활용을 위한 교사 직무연수’를 운영한다. 박물관을 활용하는 이용자(교사) 입장에서 실제적인 박물관 활용 방법을 고안·공유해 학교 내에서 박물관 자원이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세부내용으로는 지난 3월8일 새롭게 문을 연 국립광주박물관 상설전시(역사문화실, 아시아도자문화실)를 기획·담당한 학예연구사와 마주하며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감상하는 시간과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박물관교육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더불어 ▲백제 문화(이병호/공주교육대학교 교수) ▲한국의 불교문화(남동신/서울대 교수) ▲한국 도자기 이해(이애령/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장) ▲호남의 유교문화(고영진/광주대 교수) ▲남도 회화의 멋과 의미(이선옥/의재미술관장) ▲박물관교육(최성희/광주교육대 교수) 등 전문 강의 시간도 구성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사들이 우리 문화를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나아가 학교 교육과 박물관의 교육적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기를 기대한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신청은 국립광주박물관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선착순 40명으로 접수를 마감한다./김다이 기자

20	국립광주박물관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 비밀의 공간 숨겨진 열쇠'전	광주일보	7.19.
	<a href="http://www.kwangju.co.kr/article.php?aid=1626700200723875007&amp;search=광주박물관">http://www.kwangju.co.kr/article.php?aid=1626700200723875007&amp;search=광주박물관</a>		

국립광주박물관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 비밀의 공간 숨겨진 열쇠'전



광주박물관이 10월 24일까지 개최하는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전은 발굴 30년만에 한 자리에서 유물을 공개하는 의미있는 전시다.

# 1500년 전 죽은 이가 남긴 흔적들

10월 24일까지 유물 발굴 30주년 기념 특별전

금동관·굽다리 접시·연리문 유리구슬·쇠화살촉 등 전시

죽은 이의 사신을 매장한 곳을 무덤이라 한다. 무덤은 인간의 본성이 잘 드러난 공간 가운데 하나다. 당시의 생활상이나 의례, 사후세계에 대한 의식이 명징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죽음을 마주한 인간이 남긴 흔적은 당대의 삶의 이야기가 녹아있을 뿐 아니라, 죽은 이가 누렸던 문화와 풍습 등을 담고 있다. 죽은 이는 곧 살아있는 이들의 그림자가 된다는 것은 그런 이유다.

국립광주박물관 전시장에서 만나는 다양한 유물은 '사실(事實)'과 '사실(史實)'의 어디쯤에 교묘히 얽혀 있다. 드러난 유물은 사실을 말하지만, 그것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관람객의 몫이다. 더욱이 삼국시대 정고분에서 발굴된 시신의 정체는 그가 누구인지 궁금증을 유발한다. 다양한 부장품들 예를 들어 금동관, 굽다리 접시, 연리문 유리구슬, 쇠화살촉 등은 신분의 위계가 높은 사람이었다는 것만을 말해줄 뿐이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수미)이 개최하는 특별전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비밀의 공간, 숨겨진 열쇠'. 10월 24일까지 신덕고분 출토 유물을 한데 모아 공개하고 그동안 학계에서 연구했던 성과를 바탕으로 고분의 특성을 다각도로 살펴보는 자리다. 최초 발굴이 이루어진 것이 지난 1991년이었으니까, 이번 특별전은 3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있는 전시다.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 2기는 삼국시대 무덤이다. 다른 유물보다 유리관 속 피장자의 인공이 눈길을 끈다. 언급한 대로 정신구나 화려한 무기는 피장자 신분이 상당히 높은 계층이었음을 말없이 웅변한다. 비록 오래 전 죽었지만 나는 치열하게 한 시대를 살았노라'고 이야기를 건네고

있는 것 같다.

노형신 화예연구사는 피장자의 실체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피장자의 정체에 대해 아직까지 확실이 밝혀진 것은 없지만 주변과 활발하게 교류를 했을 뿐 아니라 인접 지역의 문화와 유물을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차아 상태를 분석한 결과 20~30대 건장한 청년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신덕고분은 예덕리 월야평야에 있다. 1호 무덤은 그 형상이 위에서 볼 때 열쇠 구멍 모양을 닮았다. 옆에서 보면 장구 모양과 흡사하다. (2호 무덤은 7세기 전반의 원형 무덤이다) 그런 연유로 장고분(長鼓墳)이라 일컫는다. 열쇠 모양은 마치 이곳의 비밀을 풀어주는 실마리처럼 보인다. 그 열쇠를 상상하며 안으로 들어서면 어디선가 장구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마치 삼국시대의 어느 한 때로 역류해 들어가는 듯한 착각에 사로잡힌다.

신덕리 고분은 오늘의 우리에게 저마다 상상력과 문화적 감성으로 당대의 고분과 문화를 느끼라고 말한다. 유물 하나하나가 바로 얼마 전 사용했던 것처럼 사실적이며 압제적인 감성을 환기한다.

특히 장고분은 호남지역에만 총 14기가 있는데 가까운 곳에 있는 삼국시대 무덤과는 다른 모양과 성격이 띈다. 오히려 그 모양이 일본 고훈시대 주요 무덤인 정방후원분과 비슷해 주목을 받았다. 이런 모양의 무덤이 조사된 적이 없어 그 정체가 의문으로 남아 있었을 뿐이다.

다행히 1991년 3월 도굴된 신덕고분을 발견한 광주박물관은 무덤 내부에 대한 긴급 조사를 실시해 매장 시설이 돌방(石室)이라는 사실과 다양한 유물을 확인했다.



함평 신덕고분- 쇠갑옷(비늘갑옷)

전시는 총 5부로 구성했다.

1부 '너른 들만 위, 독특한 무덤'은 처음 발견 당시 사람들이 느꼈을 무덤에 대한 의문에 초점을 맞췄다. 항공촬영 영상을 이용해 무덤의 독특한 형태를 보여주며, 공간적 위치를 다룬다.

2부 '뿔뿔의 발견, 드러난 실체'는 당시 조사 과정을 조망한다. 도굴 사건을 다룬 언론의 반응과 조사 당시 사진 자료에서 간박했던 상황을 엿볼 수 있다.

죽음과 기억에 대한 사유, 무덤 속 유물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됐다. 3부 '죽음과 삶, 기억의 공간', 4부 '무덤 속 비밀의 실마리'가 그것. 전자는 죽은 이를 묻는 과정에서 치른 의례 행위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후자는 무덤 돌방에서 발견한 부장품 800여 점을 통해 무덤 주인의 삶을 조망한다.

마지막으로 '반듯한 돌방 속 시대의 반영'에서는 2호 무덤 돌방의 구조에 담긴 백제의 지방 지배 방식을 이야기한다. 아울러 신덕고분을 조사하는 데 사용한 과학적 분석 방법과 그 결과물도 볼 수 있다. 문의 062-570-7807.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21	국립광주박물관,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 특별전	광주인	7.19.
	<a href="https://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21756">https://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21756</a>		

## 국립광주박물관,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 특별전

조현옥 편집위원 | 승인 2021.07.19 23:00 | 댓글 0

장고분의 비밀을 품은 열쇠  
30년만에 한 자리에 모아 소개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수미)은 특별전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 - 비밀의 공간, 숨겨진 열쇠>를 2021년 7월 19일(월)부터 10월 24일(일)까지 국립광주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발굴조사 30주년을 기념하여 열리는 이번 전시는 처음으로 신덕고분 출토 유물을 한데 모아 공개하고, 그동안 학계에서 연구했던 성과를 바탕으로 고분의 특성을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자리이다.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은 2기의 삼국시대 무덤으로 구성된다. 1호 무덤은 위에서 볼 때 열쇠 구멍 모양, 옆에서 볼 때 장구 모양인 6세기 전반의 장고분(長鼓墳, 장고 모양과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고, 2호 무덤은 7세기 전반의 원형 무덤이다.



국립광주박물관 신덕고분 전시실

1호 무덤과 같은 장고분은 호남지역에만 총 14기가 있는데, 가까운 곳에 있는 삼국시대의 무덤과는 다른 모양과 성격을 보인다. 오히려 그 모양이 일본 고분시대(古墳時代)의 주요 무덤인 전방후원분(前方後圓墳)과 비슷하여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이런 모양의 무덤이 조사된 적이 없어 그 정체가 의문으로 남아있었다. 30년 전인 1991년 3월, 도굴된 신덕고분을 발견한 국립광주박물관은 무덤 내부에 대한 긴급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과정에서 장고분의 매장시설이 돌방(石室)임을 최초로 밝혔고, 내부에서 화려한 장신구를 포함한 다량의 유물을 확인하였다. 그 후 도굴되었던 유물을 다시 찾았고, 3차례의 추가 발굴 조사를 거치면서 무덤에 대한 자료가 차곡차곡 쌓였다.

전시 구성은 총 5부로 구성했다. 각각의 주제는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의 발견부터 조사, 결과까지의 과정을 순서대로 반영함과 동시에 자료들이 의미하는 바를 충실하게 담았다.

1부 '너른 들만 위, 독특한 무덤'은 처음 발견 당시 사람들이 느꼈을 무덤에 대한 의문을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이다. 항공촬영 영상을 이용해 무덤의 독특한 형태를 강조하고, 이와 함께 공간적 위치를 다룬다.



동진 구슬 ©국립광주박물관 제공

2부 '뿔뿔의 발견, 드러난 실체'는 무덤을 조사하게 된 특별한 계기를 소개하고 당시 조사 과정을 조명한다. 도굴 사건을 다룬 언론의 반응과 조사 당시 사진 자료에서 긴박했던 상황을 엿볼 수 있다.

3부 '죽음과 삶, 기억의 공간'에서는 먼저 떠나간 이를 기억하려는 인간의 본성을 다룬다. 1호 무덤의 안팎에서는 죽은 이를 묻는 과정에서 지른 의례 행위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데, 이를 전 시로 형상화해 실감나게 소개한다.

4부 '무덤 속 비밀의 실마리'는 1호 무덤 돌방에서 발견한 깨물거리 800여 점을 통해 무덤 주인의 삶을 조명한다. 유물을 용도에 따라 장신구, 무기, 생활 도구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의미를 살펴본다.

5부 '반듯한 돌방 속 시대의 반영'에서는 2호 무덤 돌방의 구조에 담긴 백제의 지방 지배 방식을 이야기한다. 이와 함께 신덕고분을 조사하는 데 사용한 과학적 분석 방법과 그 결과물도 소개한다.

전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전시와 관련된 키워드들을 이용해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진다. 현재를 살아가는 관람객들이 '죽은 이를 위한 공간'인 무덤과 그곳에 담긴 '삶의 이야기'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직접 표현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22	국립광주박물관, 10월24일까지 '함평 신덕고분' 특별전	매일경제	7.19.
	<a href="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21/07/692474/">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21/07/692474/</a>		

## 국립광주박물관, 10월24일까지 '함평 신덕고분' 특별전

입력 : 2021.07.19 10:36:16 0



△함평 신덕고분 특별전

▶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립광주박물관은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비밀의 공간, 숨겨진 열쇠' 특별전을 19일부터 10월 24일까지 국립광주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시회는 1부 '너른 들판 위, 독특한 무덤', 2부 '뚝뚝의 발견, 드러난 실체', 3부 '죽음과 삶, 기억의 공간', 4부 '무덤 속 비밀의 실마리', 5부 '반듯한 들방 속 시대의 반영' 등 총 5부로 구성됐다.

신덕고분에서 출토된 유물들도 전시한다.

신덕고분은 2기의 삼국시대 무덤으로 구성됐다.

1호 무덤은 위에서 볼 때 열쇠 구멍 모양, 옆에서 볼 때 장구 모양인 6세기 전반의 장고분(長鼓墳; 장구 모양과 닮았다고 해 붙여진 이름)이다.

1호 무덤과 같은 장고분은 호남지역에만 총 14기가 있다.

2호 무덤은 7세기 전반의 원형 무덤이다.

1991년 3월, 도굴된 신덕고분을 발견한 국립광주박물관은 무덤 내부에 대해 긴급조사를 해 장고분의 매장시설이 석실(石室)임을 최초로 밝혔다.

당시 내부에서 화려한 장신구를 포함한 다량의 유물을 확인했다.

이후 도굴됐던 유물을 다시 찾았고, 3차례의 추가 발굴조사를 거치면서 무덤에 대한 자료가 차곡차곡 쌓였다.

박물관 관계자는 "발굴조사 3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처음으로 신덕고분 출토 유물을 한데 모아 공개하고, 그동안 학계에서 연구했던 성과를 바탕으로 고분의 특성을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자리다"고 설명했다.

26	베일에 쌓인 '삼국시대 고분' 드디어 실마리 풀리나	남도일보	7.20.
	<a href="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53550">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53550</a>		

# 베일에 쌓인 '삼국시대 고분' 실마리 풀릴까

## 광주박물관, '비밀의 공간, 숨겨진 열쇠'

10월 24일까지 1층 기획전시실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 유물 전시  
30년만에 한자리서 첫 공개 주목

누구에게나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다. 죽음을 마주하는 방법을 알지는 못하지만, 사람들은 먼저 떠나 보낸 소중한 이를 기약하고, 다른 세상에서 편안하기를 기원하기 위해 정성드려 마지막 공간을 장식한다. 이처럼 누군가의 영원한 안식처인 '죽은 이를 위한 공간' 속에서 발굴된 유물을 통해 1500여 년 전 삶의 자취를 유추해보는 특별한 전시가 개최됐다.

국립광주박물관은 오는 10월 24일까지 1층 기획전시실에서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비밀의 공간, 숨겨진 열쇠' 특별전을 선보인다. 발굴조사 3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전시는 신덕고분 출토 유물을 첫 공개하는 자리다. 그동안 학계에서 연구한 성과를 바탕으로 고분의 특성을 다각적으로 조명할 수 있다.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은 2기의 삼국시대 무덤으로 구성된다. 1호 무덤은 위에서 보면 열쇠 구멍 모양이고, 옆에서 보면 장구 모양으로 6세기 전반의 장고분(장구 모양과 닮았다고 해 붙여진 이름)이다. 장고분은 오랫동안 실체가 드러나지 않던 무덤으로, 학계에서는 비밀을 풀 수 있는 중요한 단서로 신덕고분을 주목하고 있다. 2호 무덤은 7세기 전반의 원형 무덤이다.

이러한 장고분은 호남지역에만 총 14기가 존재하는데, 삼국시대의 무덤과는 다른 모양과 성격을 띤다. 발견 당시 일본 고분시대의 주요 무덤인 전방후원분과 비슷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모양의 무덤은 조사된 적이 없어 의문으로 남겨졌다. 그러던 중 1991년 3월 국립광주박물관은 도굴된 신덕고분을 발견했고, 무덤 내부에 대한 긴급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도굴됐던 유물을 되찾았으



오랫동안 실체를 드러내지 않았던 장고분에 대한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국립광주박물관은 발굴조사 30주년을 기념해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비밀의 공간, 숨겨진 열쇠' 특별전을 10월 24일까지 개최한다.



식비늘갑옷.



말띠 꾸미개.

며, 3차례의 추가 발굴 조사를 거치면서 무덤에 대한 자료가 축적됐다. 장고분의 비밀을 풀기 위한 실마리가 하나씩 모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번 전시는 그동안 축적된 자료를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놓은 자리이다.

총 5부로 구성된 전시는 각 주제별로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의 발견부터 조사·결과까지의 과정을 순서대로 반영했으며, 유물 등 자료가 의미하는 바를 알기 쉽게 설명한다.

먼저 '나쁜 돌판 위, 독특한 무덤'을 주제로 한 1부에선 신덕고분을 발견 당시 사람들이 느꼈을 무덤에 대한 의문을 공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2부 '뜻밖의 발견, 드러난 실체'는 무덤을 조사하게 된 특별한 계기를 소개하고 조사 과정을 조명한다. 도굴 사건을 다룬 언론의 반응과 조사 당시 사진 자료에서 긴박했던 상황을 엿볼 수 있다.

3부 '죽음과 삶, 기약의 공간'에서는 1호 무덤의 안팎에서 죽은 이를 묻는 과정에서 치른 의례 행위의 흔적을 토대로, 떠나보낸 이를 기약하려는 인간의 본성을 전시로 형상화 한다.

4부 '무덤 속 비밀의 실마리'는 1호 무덤 돌방에서 발견한 겨문거리 800여 점을 통해 무덤 주인의 삶을

조명한다. 유물을 용도에 따라 장신구, 무기, 생활 도구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의미를 살펴본다.

5부 '반듯한 돌방 속 시대의 반영'에서는 2호 무덤 돌방의 구조에 담긴 백제의 지반 지배 방식을 이야기한다. 이와 함께 신덕고분을 조사하는 데 사용한 과학적 분석 방법과 그 결과물도 소개한다.

전시의 모든 색션을 둘러보고 마지막 출구로 나서기 전 한켠에는 조금 새롭고 공간이 마련돼 있다. 전시와 관련된 키워드를 이용해 관람객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현재를 살아가는 관람객이 '죽은 이를 위한 공간'인 무덤과 그곳에 담긴 '삶의 이야기'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직접 표현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공간을 꾸렸다.

아수미 국립광주박물관 관장은 "신덕고분은 현재로서 장고분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다. 처음으로 신덕고분에서 나온 모든 유물을 공개하는 이번 전시는 호남지역 장고분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처럼 지역에서 만들어낸 콘텐츠가 차별성을 갖게 하는 것이 국립광주박물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전시는 고분 안에서 열쇠를 찾아 비밀을 풀어나가듯 재밌게 꾸미려고 노력한 만큼 방학기간을 맞은 많은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혜윤 기자

27	장고분의 비밀 품은 열쇠, 30년만에 대공개	광주매일신문	7.20.
	<a href="http://kjdaily.com/article.php?aid=1626775979551740006">http://kjdaily.com/article.php?aid=1626775979551740006</a>		

# 장고분의 비밀 품은 열쇠, 30년만에 대공개

무덤은 죽은 사람이 편히 쉬는 공간이자 동시에 생전에 살았던 모습이 반영된 또 다른 삶의 공간이다. 무덤과 그 안에서 발견된 껌묻거리를 보면 무덤의 주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추측할 수 있다. 장고분은 열쇠 구멍 혹은 장구모양으로 호남지역에만 있는 무덤이다. 숨겨진 장고분만의 비밀이야기를 풀어낸 전시가 열린다.



## 국립광주박물관 10월24일까지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展

### 5부 구성...발굴부터 분석방법 결과물까지 전시

국립광주박물관이 장고분 발굴조사 30주년을 기념해 10월24일까지 본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비밀의 공간, 숨겨진 열쇠' 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발굴조사 30년을 기념해 처음으로 신덕고분 출토 유물을 한데 모아 공개하고, 그동안 학계에서 연구했던 성과를 바탕으로 특성을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자리다.

장고분은 열쇠구멍 혹은 장구모양으로 호남지역에만 있는 무덤이다.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은 2기의 삼국시대 무덤으로 구성된다.

1호 무덤은 위에서 볼 때 열쇠구멍 모양, 옆에서 볼 때 장구 모양인 6세기 전반의 장고분이고, 2호 무덤은 7세기 전반의 원형 무덤이다.

1호 무덤과 같은 장고분은 호남지역에만 총 14기가 있는데 가까운 곳에 있는 삼국시대의 무덤과는 다른 모양과 성격을 보인다.

전시 구성은 총 5부로 구성했다. 각각의 주제는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의 발견부터 조사, 결과까지의 과정을 순서대로 반영함과 동시에 자료들이 의미하는 바를 충실하게 담았다.

1부 '너른 들판 위, 독특한 무덤'은 처음 발견 당시 사람들이 느꼈을 무덤에 대한 의문을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이다. 항공촬영 영상을 이용해 무덤의 독특한 형태를 강조하고, 이와 함께 공간적 위치를 다룬다.

2부 '뜻밖의 발견, 드러난 실체'는 무덤을 조사하게 된 특별한 계기를 소개하고 당시 조사 과정을 조명한다. 도굴 사건을 다룬 언론의 반응과 조사 당시 사진 자료에서 긴박했던 상황을 엿볼 수 있다.

3부 '죽음과 삶, 기억의 공간'에서는 먼저 떠나간 이를 기억하려는 인간의 본성을 다룬다. 1호 무덤의 안팎에서는 죽은 이를 묻는 과정에서 치른 의례 행위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데, 이를 전시로 형상화해 실감 나게 소개한다.

4부 '무덤 속 비밀의 실마리'는 1호 무덤 동방에서 발견한 껌묻거리 800여 점을 통해 무덤 주인의 삶을 조명한다. 유물을 용도에 따라 장신구, 무기, 생활 도구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의미를 살펴본다.

5부 '반듯한 동방 속 시대의 반영'에서는 2호 무덤 동방의 구조에 담긴 백제의 지방 지배 방식을 이야기한다. 이와 함께 신덕고분을 조사하는 데 사용한 과학적 분석 방법과 그 결과물도 소개한다.

전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전시와 관련된 키워드들을 이용해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진다. 현재를 살아가는 관람객들이 '죽은 이를 위한 공간'인 무덤과 그곳에 담긴 '삶의 이야기'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직접 표현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수미 국립광주박물관장은 "고고학 전시를 매우 어렵다 생각하는데 관람객들도 많이 어려워해서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느낄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다"며 "30년만에 공개해 전시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가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다이기자



28	바다서 건진 보물급 고려청자 보러오세요	기호일보	7.21.
	<a href="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8248">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8248</a>		

# 바다서 건진 보물급 고려청자 보러오세요

| 시, 27일부터 수중 유물展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등 소장 유물 450여 점 공개

▲ 김희연 기자 | © 입력 2021.07.21 | □ 3면 | ▢ 댓글 1



우리나라의 수중 발굴 성과가 인천에서 처음 소개된다.

시는 오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수중 유물, 고려 바다의 흔적' 특별전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와 공동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전시는 우리나라 서남해안의 수중 발굴을 대표하는 고려시대 유물 중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와 국립광주박물관이 소장해 온 유물 450여 점을 공개하는 자리다. 이들 유물은 지난 40여 년간 고려 선박에서 인양된 것들이다.

우리나라 수중 발굴은 1976년 중국 원나라 무역선인 '신안선'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발굴조사된 유적만 20여 곳 이상이다. 특히 14척의 난파선을 비롯해 10만 점이 넘는 방대한 양의 수중 유물이 발견·인양된 상태다.

이번 전시는 ▶바다로 떠나다 ▶배 안에서의 생활 ▶바람과 바다가 운반한 화물 등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될 예정이다. 각 주제를 통해 서해바다에 남겨진 고려시대 뱃길과 뱃사람들의 생활, 그리고 배에 실었던 물건의 흔적들을 살펴볼 수 있다.

대표 수중 유물로는 '마도2호선'에서 발견된 보물 1783호 '청자 버드나무·갈대·대나무·꽃무늬 매병'과 '죽간'이 있다. 이를 비롯해 신안선, 십이동파도선, 태안선, 영흥도 등에서 나온 다양한 수중 유물이 선보여질 예정이다.

유동현 인천시립박물관장은 "이번 특별전은 우리나라 최초의 수중 발굴이었던 신안선, 우리나라 고선박 중 최초의 목간이 발굴된 태안선, 각종 특산물이 실렸던 마도선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선박이 발견된 영흥도 등에서 나온 수중 유물을 한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는 기회"라며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일상에 작은 위로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9	아무나 만날 수 없는 바다 속 보물이 인천에 온다	대한뉴스	7.21.
	<a href="http://www.d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4303">http://www.d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4303</a>		

## 아무나 만날 수 없는 바다속보물이 인천에 온다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07.20 21:53 | 댓글 0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김연수)와 함께 특별전 ‘수중유물, 고려바다의 흔적’을 7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수중유물 발굴 모습 © 대한뉴스

이번 전시는 지난 1976년부터 2019년까지 40여 년간의 수중 발굴 성과를 바탕으로 신안선과 고려 선박에서 인양된 수중유물 450여 점을 선보이는 자리로, 수중문화재 전시로는 인천에서 처음 소개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수중 문화유산은 1976년 중국 원나라 무역선인 ‘신안선’의 발굴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발굴 조사된 유적만 20여 곳 이상이며, 14척의 난파선을 비롯해 10만 점이 넘는 방대한 양의 유물이 발견, 인양되었다.

이번 전시는 우리나라 서남해안의 수중발굴을 대표하는 고려시대 유물 가운데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와 국립광주박물관이 소중히 간직해온 소장품을 엄선해 공개하는 전시이다.

이번 전시는 ‘바다로 떠나다’, ‘배 안에서의 생활’, ‘바람과 바다가 운반한 화물’ 세 가지 주제로 구성해 서해 바다에 남겨진 고려시대의 뱃길과 뱃사람들의 생활, 그리고 배에 실었던 물건의 흔적들을 살펴본다.

마도2호선에서 발견된 보물 1783호 <청자 버드나무·갈대·대나무·꽃무늬 매병>과 <죽간>을 비롯해 신안선, 십이동파도선, 태안선, 영흥도 등에서 나온 다양한 수중유물이 선보인다.

유동현 인천시립박물관 관장은 “이번 특별전은 우리나라 최초의 수중발굴이었던 신안선, 우리나라 고선박 중 최초의 목간이 발굴된 태안선, 각종 특산물이 실렸던 마도선,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고선박이 발견된 영흥도 등에서 나온 수중유물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이다.”라며 “거친 바다를 헤치고 나와 마침내 우리에게 당도한 수중유물의 특별한 힘을 보며, 전시를 관람한 모든 분들이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일상에 작은 위로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30	인천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와 '수중유물, 고려바다의 흔적' 개최	컨슈머타임즈	7.21.
	<a href="http://www.c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468434">http://www.c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468434</a>		

## 인천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와 '수중유물, 고려바다의 흔적' 개최

안우진 기자 youn5019@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7월 21일 00시 24분 | 댓글 0



아무나 만날 수 없는 바다 속 보물이 인천에 온다



(사진제공=인천시)

[컨슈머타임즈 안우진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김연수)와 함께 특별전 '수중유물, 고려바다의 흔적'을 7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난 1976년부터 2019년까지 40여 년간의 수중 발굴 성과를 바탕으로 신안선과 고려 선박에서 인양된 수중유물 450여 점을 선보이는 자리로 수중문화재 전시로는 인천에서 처음 소개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수중 문화유산은 1976년 중국 원나라 무역선인 '신안선'의 발굴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발굴 조사된 유적만 20여 곳 이상이며 14척의 난파선을 비롯해 10만 점이 넘는 방대한 양의 유물이 발견, 인양되었다.

이번 전시는 우리나라 서남해안의 수중발굴을 대표하는 고려시대 유물 가운데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와 국립광주박물관이 소중히 간직해온 소장품을 엄선해 공개하는 전시이다.

이번 전시는 '바다로 떠나다', '배 안에서의 생활', '바람과 바다가 운반한 화물' 세 가지 주제로 구성해 서해 바다에 남겨진 고려시대의 뱃길과 뱃사람들의 생활, 그리고 배에 실었던 물건의 흔적들을 살펴본다.

마도2호선에서 발견된 보물 1783호 '청자 버드나무-갈대-대나무-꽃무늬 매병'과 '죽간'을 비롯해 신안선, 십이동파도선, 태안선, 영흥도 등에서 나온 다양한 수중유물이 선보인다.

유동현 인천시립박물관 관장은 "이번 특별전은 우리나라 최초의 수중발굴이었던 신안선, 우리나라 고선박 중 최초의 목간이 발굴된 태안선, 각종 특산물이 실렸던 마도선,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고선박이 발견된 영흥도 등에서 나온 수중유물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이다"며 "거친 바다를 헤치고 나와 마침내 우리에게 당도한 수중유물의 특별한 힘을 보며 전시를 관람한 모든 분들이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일상에 작은 위로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31	국립김해박물관서 23일 '가야 무기' 심포지엄	경남도민일보	7.21.
	<a href="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67696">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67696</a>		

## 국립김해박물관서 23일 '가야 무기' 심포지엄

이수경 기자 (sglee@jdomin.com) | 2021년 07월 21일 수요일 | 댓글 0



### | 유튜브로 온라인 생중계

국립김해박물관은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가야 전사의 무기' 학술 심포지엄을 연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립김해박물관 중장기 연구과제인 '가야 전사 연구'를 계기로 기획됐다. 가야 전사의 무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총 6개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주제는 '가야의 화살통'(이성훈·부산박물관)으로 가야 고분에서 출토된 화살통의 구체적인 형태와 착용 방법을 검토해 종류에 따른 전술적인 용도와 장식성을 살펴본다. 두 번째 주제는 '가야 철축의 변천과 보유 양상'(장상갑·의령박물관)이다. 발표자는 가야지역 고분에서 출토된 다양한 (쇠)화살축의 변천과 부장 양상을 통해 지역별 특징을 발표한다.

세 번째 주제는 '가야의 환두대도'(박경도·국립광주박물관)다. 삼국시대 각 국은 귀걸이, 허리띠 장식, 금동 신발 등과 함께 환두대도를 위세품으로 활용했다. 발표자는 지금까지 연구 성과를 살피고 백제와 가야 환두대도의 세부 속성을 추가로 비교해 가야 환두대도의 제작 기법과 계보를 논한다.

네 번째 주제는 '4~5세기 김해·부산 지역 장병 무기 비교 검토'(신동조·부산박물관)이다. 김해와 부산 지역에서 출토된 장병무기(긴 자루 끝에 날카로운 날을 매단 무기)의 변천과 분포 양상을 검토했다. 다섯 번째 주제는 '고대 갑주의 의례적 성격'(김혁중·국립김해박물관)으로 갑주(갑옷과 투구)가 의례에서 사용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그 의미를 살펴본다.

마지막 주제 '무기 체계로 본 가야 전사'(우병철·영남문화재연구원)에서는 금관가야와 대가야의 무기 체계와 군사 조직 특성을 알아본다.

이날 심포지엄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면 접촉을 방지하고자 국립김해박물관 공식 유튜브 채널로 온라인 생중계할 예정이다.

33	국립광주박물관, 특별전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	광주타임즈	7.21.
	<a href="http://www.gj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3458">http://www.gj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3458</a>		

## 국립광주박물관, 특별전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

📍 / 전효정 기자 | 🕒 승인 2021.07.21 17:16 | 💬 댓글 0

| 10월24일까지...유물·연구결과 소개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 특별전. / 국립광주박물관 제공

[광주타임즈]전효정 기자=함평 예덕리에서 발견된 삼국시대 고분의 출토 유물과 연구 성과물이 공개된다.

국립광주박물관은 특별전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비밀의 공간, 숨겨진 열쇠'를 10월24일까지 1층 기획전시실에서 선보인다고 최근 밝혔다.

발굴조사 3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전시는 처음으로 신덕고분 출토 유물을 공개한다. 또 그동안 학계에서 연구했던 성과를 바탕으로 고분의 특성을 다각적으로 살펴본다.

총 5부로 구성된 전시는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의 발견부터 조사, 결과까지의 과정을 순서대로 보여준다.

1부 '너른 들판 위, 독특한 무덤'은 항공촬영 영상을 이용해 무덤의 독특한 형태를 보여준다.

2부 '뫼밖의 발견, 드러난 실체'는 무덤을 조사하게 된 계기를 소개하고 당시 조사 과정을 조명한다. 도굴 사건을 다룬 언론의 반응과 조사 당시 사진 자료에서 긴박했던 상황을 엿볼 수 있다.

'죽음과 삶, 기억의 공간'에서는 죽은 이를 묻는 과정에서 치른 의례 행위를 전시로 형상화해 소개한다.

4부 '무덤 속 비밀의 실마리'는 1호 무덤 돌방에서 발견한 꺼문거리 800여점을 통해 무덤 주인의 삶을 조명한다.

유물을 용도에 따라 장신구, 무기, 생활 도구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의미를 살펴본다.

5부 '반듯한 돌방 속 시대의 반영'에서는 2호 무덤 돌방의 구조에 담긴 백제의 지방 지배 방식을 이야기한다.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은 1991년에 국립광주박물관이 지역의 중요 대형고분에 대해 조사를 하던 중 도굴경을 발견하면서 본격 조사가 이뤄졌다.

총 2기의 삼국시대 무덤으로 1호 무덤은 위에서 볼 때 열쇠 구멍 모양, 옆에서 볼 때 장구 모양을 하고 있어 장고분(長鼓墳)이라 불리며 2호 무덤은 7세기 전반의 원형 무덤이다.

국립광주박물관 전시 담당자는 "장고분은 오랫동안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던 무덤이다"며 "처음으로 신덕고분에서 나온 모든 유물을 공개하는 이번 전시는 호남지역 장고분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34	1500년 전 한일관계 비밀 품은 열쇠, 30년만에 공개	전남일보	7.21.
	<a href="https://www.jnilbo.com/view/media/view?code=2021072116402224368">https://www.jnilbo.com/view/media/view?code=2021072116402224368</a>		

# ‘임나일본부설’ 진실 풀 열쇠, 30년만에 공개

## 국립광주박물관 특별전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

발굴조사 30주년 기념  
신덕고분 출토 유물 전시  
일본·백제·가야 유물 추정

1980-1990년대 전남북 해안 일대에 늘어선 14기 가량의 고분들은 최근까지도 학계의 관심거리였다. 논란의 중심은 고분의 모양이었다. 앞쪽은 네모진 방형, 뒤쪽은 둥그런 원형의 모양이 일본 야마토 정권의 상징이었던 ‘전방후원분’의 모습과 비슷했기 때문이다. 이 고분들을 두고 일본 우파세력은 4-6세기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임나일본부설’을 뒷받침하는 물증이라고 주장했다. 당시까지 한반도에는 ‘전방후원분’을 닮은 무덤이 조사된 적이 없어 그 정체가 의문으로 남아있었던 차, 1991년 국립광주박물관이 발굴한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에 대한 긴급조사를 실시했다.

발굴조사가 30년간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신덕고분에 대한 국립광주박물관의 종합보고서는 정식으로 발표된 적이 없다. 한일 학계의 관심은 더욱 뜨거워졌고, ‘임나일본부설’에 대한 논란도 가열됐



국립광주박물관이 30년간 진행한 함평군 예덕리 신덕고분에 대한 조사결과가 전시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국립광주박물관 제공

다. ‘임나일본부설’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키는 국립광주박물관의 신덕고분에 대한 연구결과가 30년만에 발표된다.

국립광주박물관은 오는 10월24일까지 특별전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 - 비밀의 공간, 숨겨진 열쇠’를 박물관 1층 기획전실에서 진행중이다. 신덕고분발굴조사 3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전시는 신덕고분 출토 유물을 한데 모아 공개하고, 그동안 학계에서 연구했던 성과를 바탕으로 고분의 특성을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자리다.

박물관에 따르면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은 2기의 삼국시대 무덤으로 구성된다. 1호 무덤은 위에서 볼때 열쇠구멍 모양, 옆에서 볼때 장구모양인 6세기 전반의 장고

분이고, 2호 무덤은 7세기 전반의 원형 무덤이다. 1호 무덤과 같은 장고분은 호남 지역에만 총 14기가 있는데, 가까운 곳에 있는 삼국시대 무덤과는 다른 모양과 성격을 보인다. 오히려 그 모양이 일본 고훈시대(古墳時代)의 주요 무덤인 전방후원분(前方後圓墳)과 비슷해 주목을 받았다.

국립광주박물관은 조사과정에서 장고분의 매장시설이 들방(石室)임을 최초로 밝혔고, 내부에서 화려한 장신구를 포함한 다량의 유물을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출토된 유물들은 일본 뿐 아니라 백제, 가야 등 타 국가에서 건너온 것들이 대부분으로, 일본 유물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노형신 국립광주박물관 학예연구사는

“당시 호남지역은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성격으로 타 국가의 문물을 거부감없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며 “분석결과 장고분은 일본 야마토정권의 상징물이었던 ‘전방후원분’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설명했다.

연구결과에 대한 전시는 총 5부로 구성됐다. 각각의 주제는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의 발견부터 조사, 결과까지의 과정을 순서대로 반영함과 동시에 자료들이 의미하는 바를 충실하게 담았다.

1부 ‘너른 들만 위, 독특한 무덤’은 처음 발견 당시 사람들이 느꼈을 무덤에 대한 의문을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이다. 항공 촬영 영상을 이용해 무덤의 독특한 형태를 강조하고, 이와 함께 공간적 위치를 다

룬다.

2부 ‘뒤틀림의 발견, 드러난 실체’는 무덤을 조사하게 된 특별한 계기를 소개하고 당시 조사 과정을 조명한다. 도굴 사건을 다룬 언론의 반응과 조사 당시 사진 자료에서 간파했던 상황을 엿볼 수 있다.

3부 ‘죽음과 삶, 기억의 공간’에서는 먼저 떠나간 이를 기억하려는 인간의 본성을 다룬다. 1호 무덤의 안팎에서는 죽은 이를 묻는 과정에서 치른 의례 행위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데, 이를 전시로 형상화해 실감나게 소개한다.

4부 ‘무덤 속 비밀의 실마리’는 1호 무덤 들방에서 발견한 거문거리 800여 점을 통해 무덤 주인의 삶을 조명한다. 유물을 용도에 따라 장신구, 무기, 생활 도구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의미를 살펴본다.

5부 ‘발드득한 들방 속 시대의 반영’에서는 2호 무덤 들방의 구조에 담긴 백제의 지방 지배 방식을 이야기한다. 이와 함께 신덕고분을 조사하는 데 사용한 과학적 분석 방법과 그 결과물도 소개한다.

전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전시와 관련된 카워드를 이용해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진다. 현재를 살아가는 관람객들이 ‘죽은 이를 위한 공간’인 무덤과 그곳에 담긴 ‘삶의 이야기’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직접 표현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박상지 기자 sangji.park@jnilbo.com

35	국립광주박물관 '함평 신덕고분' 특별전 10월24일까지	전국매일신문	7.24.
	<a href="http://www.jeonmae.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8746">http://www.jeonmae.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8746</a>		

## 국립광주박물관 '함평 신덕고분' 특별전 10월24일까지

호남취재본부/서길원기자 | 승인 2021.07.24 10:00 | 댓글 0



함평 신덕고분 특별전. [광주국립박물관 제공]

국립광주박물관은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비밀의 공간, 숨겨진 열쇠' 특별전을 오는 10월 24일까지 국립광주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1부 '너른 들만 위, 독특한 무덤' ▲2부 '뜻밖의 발견, 드러난 실체' ▲3부 '죽음과 삶, 기억의 공간' ▲4부 '무덤 속 비밀의 실마리' ▲5부 '반듯한 돌방 속 시대의 반영' 등으로 구성됐다.

2기의 삼국시대 무덤으로 구성된 '신덕고분'에서 출토된 유물들도 전시한다.

1호 무덤은 위에서 볼 때 열쇠 구멍 모양, 옆에서 볼 때 장구 모양인 6세기 전반의 장고분(長鼓墳; 장구 모양과 닮았다고 해 붙여진 이름)이다.

1호 무덤과 같은 장고분은 호남지역에만 총 14기가 있다. 2호 무덤은 7세기 전반의 원형 무덤이다.

1991년 3월, 도굴된 신덕고분을 발견한 국립광주박물관은 무덤 내부에 대해 긴급조사를 해 장고분의 매장시설이 석실(石室)임을 최초로 밝혔다.

당시 내부에서 화려한 장신구를 포함한 다량의 유물을 확인했다. 이후 도굴됐던 유물을 다시 찾았고, 3차례의 추가 발굴조사를 거치면서 다양한 자료가 구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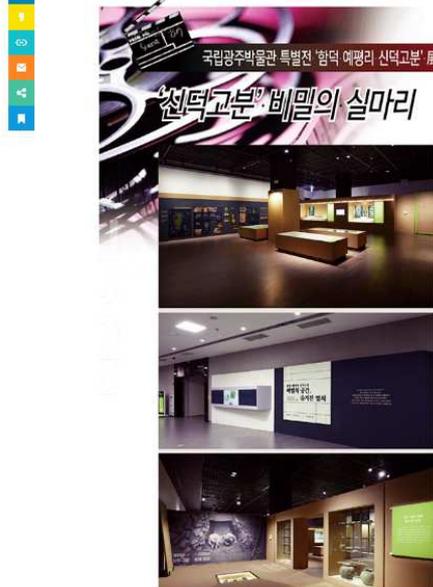
한편 박물관 관계자는 "발굴조사 3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처음으로 신덕고분 출토 유물을 한데 모아 공개하고, 그동안 학계에서 연구했던 성과를 바탕으로 고분의 특성을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자리다"고 말했다.

36	'신덕고분' 비밀의 실마리	일요서울	7.26.
	<a href="https://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4975">https://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4975</a>		

## '신덕고분' 비밀의 실마리

▲ 김영아 기자 | © 일요 2021.07.26 18:23 | ☐ 호수 1421 | □ 61면 | 📄 댓글 0

국립광주박물관 특별전 '함덕 예평리 신덕고분' 展



**[일요서울 | 김영아 기자]** 전라남도 함평군 예평리에서 발견된 '신덕고분' 30여 년의 조사 결과를 담은 특별전 '함평 예평리 신덕고분'이 국립광주박물관 1층 기획전실에서 지난 7월19일부터 오는 10월 24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신덕고분 출토 유물을 한데 모아 공개하고 고분의 특성을 다각도로 살펴보는 자리다.

삼국시대 무덤으로 구성되는 신덕고분은 크게 장고 모양을 닮은 '장고분'과 '원형무덤' 2기로 구성된다. 1호 무덤형 장고분은 호남지역에 총 14기가 존재하며 삼국시대 무덤과는 상이한 차이를 갖는다. 30년 전인 1991년 3월에 신덕고분을 발견한 국립광주 박물관은 무덤 내부를 긴급조사했다. 그 결과 장고분의 매장시설이 돌방임을 최초로 밝히고 내부에서 다량의 유물을 발견해냈다. 그 과정에서 도굴되었던 유물을 되찾고 수차례 추가 발굴조사를 거친 자료를 모았다.

전시 구성은 총 5부로 신덕고분의 발견 당시부터 추적해 온 자료를 충실히 보존했다. 가장 먼저 '너를 들만 위, 독특한 무덤'에 해당되는 공간에서는 항공 촬영 영상을 통한 무덤의 독특한 구조와 공간적 위치를 대중에게 알린다.

2부 공간인 '뚝뚝의 발견, 드러난 실체'에서는 무덤을 조사하게된 계기를 소개하고 조사과정을 조명했다. 특히 이공간에서는 도굴 사건을 다룬 언론 내용과 당시의 사진 자료를 공개해 긴박했던 순간의 시점을 공유했다.

3부 공간에 해당하는 '죽음과 삶, 기억의 공간'에서는 무덤의 안팎에서 죽음을 묻는 과정을 보여주는 의례 행위의 흔적을 형상화하는 과정을 통해 먼저 떠나간 이를 기억하고 위로하는 인간의 본성을 다뤘다.

4부에 해당하는 '무덤 속 비밀의 실마리'에서는 1호 무덤 돌방에서 발견한 켜문거리 800여 점을 통해 무덤 주인의 삶을 조명해 보는 시간을 연출했다. 5부에서는 2호 무덤 돌방의 구에 담긴 백제의 지방 지배 방식을 알려준다. '반듯한 돌방 속 시대의 반영'으로 신덕고분 조사과정에서 과학적 분석방법과 의미를 짚어준다. 특히 전시를 통해 관련 키워드를 던지면서 관람객들은 '죽은 이를 위한 공간'인 무덤에서 '살의 이야기'를 읽고 현생에 투영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특별전을 준비한 전시 관계자는 "오랫동안 장고분은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무덤을 고알려져 왔다. 여러 장고분 중에서 신덕고분만큼 켜문거리의 구성을 온전히 파악 가능한 무덤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신덕고분은 장고분의 비밀을 풀어 나갈 수 있는 열쇠 역할을 한다. 처음으로 신덕고분에서 나온 유물을 공개하는 자리를 통해 장고분의 성격을 규명하고 그 시절 삶을 살아간 선인들의 삶을 이해하고자 이 전시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37	낮엔 숲투어·밤엔 달투어, 낮밤없는 광주박물관	무등일보	7.29.
	<a href="http://www.mdilbo.com/detail/EHdc4G/651589">http://www.mdilbo.com/detail/EHdc4G/651589</a>		

## 낮엔 숲투어·밤엔 달투어, 낮밤없는 광주박물관

일석 2021.07.29. 17:50

[국립광주박물관 '숲 이야기' 숲 달밤투어]  
90여가지 수종 서식 2만2천평 정원  
오후엔 숲 해설·자연 미술 등 즐기고  
밤엔 ASMR·달밤미션·프레스토랑



박물관달밤투어

역사적 의미를 가진 유물들을 볼 수 있는 박물관. 이 박물관을 더욱 색다르게 즐겨볼 순 없을까? 정원이 아름다운 국립광주박물관이 경내 정원과 정원 속 다양한 식물을 활용해 낮과 밤에 박물관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 운영한다.

국립광주박물관 경내 면적은 주차장을 제외하고서도 약 2만2천평에 달한다. 이 드넓은 경내에는 90-94가지의 다양한 수종이 뿌리내리고 있는데 각기 다른 식물들이 어우러져 국립광주박물관만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전시관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난 길과 연못을 따라 나란히 심어진 배롱나무는 한국적 미가 돋보이는 전시관 건물과 어우러져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배롱나무 뿐만 아니라 홍매화, 분홍매화, 정매화 등 매화나무와 모과나무, 산수유, 이팝나무, 동백꽃 등 다양한 수종이 사계절의 매력을 선사한다.



박물관 숲이야기

이해 박물관은 경내 정원을 심분 활용한 '박물관 숲 이야기'를 지난 2015년부터 운영 중이다. 정원을 거닐며 숲의 다양한 가치를 직접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으로 산림문화연구소와 함께 맞춤형 숲 해설, 오감으로 관찰하기, 놀이, 자연미술, 전시관람 등의 테마로 진행된다. 보통 3월부터 10월까지 둘째주 토요일 오후 2시30분~4시에 진행되는 '박물관 숲 이야기'는 선착순 40명을 받아 두개 팀으로 나눠 운영된다.

올해는 4월 '나무, 신을 부르다', 5월 '정원 숲 아래, 꽃잎 풀잎 편지', 6월 '시선, 나비처럼 펼쳐라', 7월 '새, 하늘과 땅을 잇다' 등의 주제를 가지고 시민들을 만났다. 8월에는 '어둠정원, 붉은 꽃이 필 때'를 주제로 박물관 정원의 배롱나무꽃을 살펴보고 이를 가지고 숲체험을 한다.

'박물관 숲 이야기'가 오후 햇빛을 받은 정원을 즐길 수 있다면 '박물관 숲 달밤투어'는 어둠날 밤의 정원을 만끽할 수 있다. '박물관 숲 달밤투어'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오랜 기간 휴관에 시민들을 만날 수 없었던 박물관이 오랜만에 시민들을 맞이하며 시작한 프로그램이다.



당초 1회성 특별프로그램으로 개설됐다가 추가 개설을 묻는 전화 문의 등이 많아 올해 7월과 8월에 재개설했다. 어둠밤에 숲에서 즐길 수 있는 자유의 시간으로 꾸며진다. 밤 숲에서 들리는 풀벌레 소리, 자연의 소리, 밤의 소리를 들어보는 'ASMR'시간과 '박물관 숲 속 파티'를 테마로 '배롱꽃초롱을 밝혀라' '자연으로 요리하는 프레스토랑' '달밤 미션' 등이 진행된다.

유요진 문화행사 담당자는 "광주 시민 뿐만 아니라 전남에서도 찾아올 정도로 숲 이야기가 호응이 좋다니보니 낮과 밤에 즐길 수 있는 부분이 다음 것이라 생각해 달밤투어를 기획, 운영하게 됐다"며 "숲이 코로나19로 심신이 지친 시민들에게 위안과 치유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많은 분들로부터 반응이 좋다. 올해는 특별 이벤트로 가족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야간 스낵촬영 등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물관달밤투어

한편 8월 '박물관 숲 이야기'는 14일에 열리며 참가 신청은 6-13일 받는다. 같은 달 '박물관 숲 달밤투어'는 28일 진행되며 20-27일 참여 접수한다. 참가 신청은 국립광주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참가비는 무료.